익산 미륵사지 출토 사리장엄구 '국보' 승격된다

문화재청 지정예고…백제代 '불교공예 정수' 평가

고대 사리장엄 연구 절대적 사료
고려 · 조선시대 전적 보물 예고
부석사 안양루 · 범종각 보물 지정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백제시대 불교공예의 정수로 알려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익산 미륵사지 출토 사리장엄구' 가 '국보' 로 승격된다.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보물 '익산 미륵사지 서탑 출토 사리장엄구' 를 국가지정문화재 국보로 지정 예고하고, 〈대방광불화엄경소 권88〉 등 고려 · 조선시대 전적, 근대 등록문화재 6건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고 10월 31일 밝혔다. 또한, 비지정문화재인 봉화 청암정, 영주 부석사 안양루, 영주 부석사 범종각 등 3건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했다.

보물에서 국보로 승격되는 '익산 미륵사지 서탑 출토 사리장엄구' 는 2009년 익산 미륵사지 서탑 심주석(탑 구조의 중심을 이루는 기둥)의 사리공(불탑 안에 사리를 넣을 크기로 뚫은 구멍)에서 나온 유물이다. 출토 사리장엄구는 639년(백제 무왕 40년) 절대연대를 기록한 금제 사리봉영기와 함께 금동사리외호 및 금제 사리내호, 각종 구슬과 공양품을 담았던 청동합 6점을 포함해 총 9점으로 구성돼 있다.

사리장엄구 중 금제사리봉영기는 얇은 금판으로 만들어 앞 · 뒷면에 각각 11줄 총 193자가 새겨져 있는데, '좌평(佐平) 사택적덕(沙宅積德)의 딸인 백제 왕후가 재물을 시주해 사찰을 창건하고 기해년(己亥年, 639)에 사리를 봉안해 왕실의 안녕을 기원한다' 는 내용이다. 이는 〈삼국유사〉를 통해 전해진 미륵사 창건 설화에서 구체적으로 나아가 조성 연대와 주체에 대한 새로운 역사적 사실을 밝힌 계기가 됐다.

사리장엄구 중 금동사리외호 및 금제 사리내호는 모두 몸체의 허리 부분을 돌려 여는 구조로, 동아시아 사리기 중에서 유사한 사례를 찾기 어려운 독창적인 구조이다. 전체적으로 선의 흐름이 유려하고 양감과 문양의 생동감이 뛰어나 기형(器形)의 안정성과 함께 세련된 멋이 한껏 드러나 있다.


국보로 승격 예고된 익산미륵사지 사리장엄구의 금동제사리외호, 금제사리내호.

사리장엄구 중 청동합은 구리와 주석 성분의 합금으로 크기가 각기 다른 6점으로 구성돼 있으며, 그 중 하나에는 '달솔(達率) 목근(目近)' 이라는 명문이 새겨져 있는데 이를 통해 달솔이라는 벼슬(2품)을 한 목근이라는 인물이 시주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명문을 바탕으로 시주자의 신분이 백제 상류층이었다는 사실과 그가 시주한 공양품의 품목을 알 수 있어 사료적 가치와 함께 백제 최상품 그릇으로 확인돼 희귀성이 높다.

문화재청은 "백제 왕실에서 발원해 조성된 '익산 미륵사지 서탑 출토 사리장엄구' 는 석탑 사리공에서 봉안 당시 모습 그대로 발굴돼 고대 동아시아 사리장엄 연구에 있어 절대적 기준이 된다"면서 "제작 기술면에서도 최고급 금속재료와 백제 금속공예 기술의 역량을 응집해 탁월한 예술품으로 승화시켰다. 이는 7세기 전반 백제 금속공예 기술사를 증명해주며 동아시아 사리공예품의 대외교류를 밝혀주는 자료"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보물로 새롭게 지정 예고된 〈초조본 유가사지론〉 권66과 〈대방광불화엄경소〉 권88는 고려 11세기에서 12세기 동안 만들어진 불교경전이다.

국립한글박물관 소장 〈초조본 유가사지론〉 권66은 총 100권으로 구성된 〈유가사지론〉중 권66에 해당하는 고려 11세기에 간행된 자료로, 해당 권차는 현재까지 발견된 사례가 없는 유일본이다.

〈대방광불화엄경소〉 권88은 총 120권으로 이뤄진 〈대방광불화엄경소〉의 권88에 해당하는 자료로, 1087년(고려 선종 4) 우리나라에 목판이 전래되면서 국내에서 간행되기 시작했다. 이후 1424년(세종 6)에 일본이 여러 차례 대장경판을 요구할 때 다른 경판들과 함께 일본에 하사해 그 이후에 찍은 간행본은 국내에서 더 이상 찾아 볼 수 없는 귀중본이다.

종로도서관 소장 〈불조역대통재〉 22권 14책도 이번에 보물로 지정 예고됐다. 원나라 승려 염상(1282~?)이 석가모니의 탄생부터 1334년까지 고승들의 전기(傳記)나 일화들을 시간 순으로 엮은 책으로, 1430년(명 선덕 5) 다시 간행된 판본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 새로 새긴 목판을 1472년(성종 3년) 인수대비(1437~1504)의 발원으로 찍은 것이다.

한편, 문화재청은 이번에 국보로 지정 예고되는 익산 미륵사지 서탑 출토 사리장엄구, 보물로 지정 예고되는 고려, 조선시대 전적 등 7건에 대해 30일간의 예고 기간을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국보 · 보물로 지정할 예정이다.

"흑산도 무심사지, 선종 · 관음도량 성격 가져"

불교문화재연구소 · 신안군
'무심사지' 주제로 학술대회
발굴성과, 보존 방안 논의해

고대 해양교류 중심지였던 흑산도의 무심사지를 조명하는 학술대회가 열렸다.

(재)불교문화재연구소(소장 제정)와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11월 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흑산도 무심사지 복원 · 정비 활용 방안을 위한 학술대회' 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에는 흑산도 무심사지 발굴성과와 보존 방안을 제시하고 무심사지의 불교사적 위상을 살핀 연구 논문들이 발표됐다.

김진덕 불교문화재연구소 팀장은 '신안 흑산도 무심사지 발굴조사를 통해 본 유적의 성격' 주제 발표에서 4차례에 걸친 무심사지의 발굴성과를 조명했다. 김 팀장에 따르면 무심사지에 대한 조사는 1999년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가 상라산성을 조사하던 중 통일신라시대 '무심사선원(无心寺禪院)' 명 기와를 수습하면서 사찰 명칭이 파악됐다. 이후 목포대 박물관에서 2009년 1차 시굴조사를, 전남문화재연구소에서 2015년과 2016년에 2 · 3차 발굴조사를, 불교문화재연구소에서 2021년 4차 발굴조사를 진행했다.



11월 3일 열린 흑산도 무심사지 복원 · 정비 활용 방안을 위한 학술대회에 참석한 발표자와 주요 내외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4차례 걸친 발굴조사를 통해 건물지 6동과 수혈 7기, 구상유구 2기, 석렬 2기가 확인됐다. 8세기 중엽부터 14세기에 이르는 다양한 유물이 출토되기도 했다.

김 팀장은 "흑산도는 최근 이뤄진 발굴조사를 통해 통일신라~고려시대에 걸친 국제 무역항으로서의 면모를 확인해주고 있다"면서 "특히 관사터에서 출토된 '법당지' 기와편 등과 무심사지에서 출토된 '관' 명 기와편 등은 고려시대 사찰의 사역 범위 및 역할에 대한 실증적 자료를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심사지 중심권역에 대한 정밀 발굴조사와 함께 관사터 주변의 발굴과 연구 등이 병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신선혜 호남대 교수는 '신안 흑산도 무심사지의 불교사적 위상' 주제 발표에서 무심사가 어떤 성격을 가진 사찰이었는지를 살폈다. 신 교수는 "장보고가 무심사를 비롯한 서남해안 선종에 관심을 보인 이유는 정치적 경제적 목적도 있었겠으나, 법화원에도 선종 승려가 상주했던 점을 통해 장보고의 법화 신앙과 선종이 사상적으로 합일되는 면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서남해안 선종의 성격에 관음 신앙적 요소를 보임에 따라 무심사 역시 선종사찰로서 관음신앙을 중요시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통일신라~고려시대 흑산도의 국제항적 면모(강봉룡 목포대 교수)', '신안군 석조문화재의 현황과 특징(이현수 불교문화재연구소 팀장)' 이 각각 발표됐다. 토론자로는 이종수 순천대 교수, 한성욱 민족문화유산연구원 이사장, 오호석 단국대 석주선기념박물관 학예사, 곽승혁 신안군청 학예사가 참여했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에는 대흥사 주지 법상 스님, 불교문화재연구소장 제정 스님, 박우량 신안군수가 참석했다.

신성민 기자

제2회 한암상 수상자 무비 스님 선정

한국불교학회 11월 2일 발표
"韓불교 대표하는 교학 종장"
11월 4일 추계대회서 시상식



조계종 초대 종정 한암 스님의 사상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한암상 수상자로 前 조계종 교육원장 무비 스님〈사진〉이 선정됐다.

(사)한국불교학회(회장 백도수)는 "제2회 한암상 수상자로 한국불교 대강백인 前 조계종 교육원장 무비 스님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제2회 한암상 수상자인 무비 스님은 1958년 범어사로 출가해 해인강원과 동국역경연수원에서 수학하고, 제방 선원에서 10여 년을 안거정진했다. 1976년 한암 스님의 수제자인 화엄종주 탄허 스님에게 〈화엄경〉을 배우고 법을 받았다. 이후 스님은 통도사 강원 강주와 범어사 강원 강주, 은해사 승가대학원장과 동화사 한문불전승가대학원장, 조계종 교육원장, 동국역경원장 등을 역임했다.

한국불교학회는 "평생 번역과 화엄학을 중심으로 동양학 홍포에 매진했던 탄허 대강백의 뜻을 받들어 무비 스님은 〈대방광불화엄경 강설〉 81권과 〈직지 강설〉 2권 등 총 20여 종 130여 권을 번역 · 찬술하는 청출어람의 면모를 보였다. 무비 스님은 학문에 대한 깊은 열정과 자비로운 지도로 한국불교 교학의 대종장으로 우뚝 서 계신다"면서 "무비 스님의 공훈은 한암 선사의 청정한 수행 가풍과 한국불교를 밝히는 높은 뜻에 부합돼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상식은 11월 4일 오후 3시 동국대 다향관 세미나실에서 '현대사회와 불교윤리' 를 주제로 열리는 한국불교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진행됐다.

한암상은 한국불교학회와 월정사가 한암 스님의 정신을 기려 불교학 진흥을 목적으로 제정했다. 신성민 기자

보물 '봉화 축서사 괘불' 첫 서울 나들이

불교중앙박물관 11월 동안 전시
특별전 '등운산 고은사' 일환으로
고운사 말사 괘불 3점 교체 전시
봉정사 관음좌상 보관 없이 공개

국가지정문화재 보물인 '봉화 축서사 괘불' 이 처음으로 서울에서 전시된다.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관장 미등)은 "11월 1일부터 한 달동안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로비에서 보물 '봉화 축서사 괘불' 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는 조계종 제16교구본사 고운사(주지 등운)와 소속 말사의 성보를 엄선해 특별전시하는 '등운산 고운사' 의 일환으로 특별전에서는 고운사 말사의 괘불 3점이 순환 전시되고 있다. '봉화 축서사 괘불' 은 마지막 순환 전시 괘불이다.

'봉화 축서사 괘불' 은 1768년에 제작된 높이 894cm, 너비 509cm의 크기로 대형 불화이며, 석가모니 부처님을 중심으로 배경에 솟아오르는 모습의 구름을 채워 넣어 법석에 강림한 부처님의 상서로운 모습을 극대화했다. 석가모니불을 홀로 그린 독존 형식의 괘불이지만, 광배 위로 화불과 보살을 표현하고 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물인 '봉화 축서사 괘불'. 처음으로 서울에서 전시된다.

이 같은 도상은 이전에 조성된 괘불에는 보이지 않는 새롭게 나타난 도상이다.

괘불의 화기(畵記)에는 정일 스님과 낙선 스님, 일성 스님 등 10명의 스님들이 1768년 3월 14일에 불사를 시작해 25일간 괘불을 그리고, 4월 부처님오신날 축서사 대적광전에 점안 · 봉안한 기록이 남아 있다. 괘불 조성에는 환성 지안 스님의 3세손이자 1769년 봉정사의 경판 조성 불사를 증명하였던 벽허 명찬 스님이 증명으로 참여하고 있어, 당시 영남 북부지역 문중 불사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

불교중앙박물관은 "괘불은 사찰의 야외에서 설행되는 의식을 위해 조성된 것으로, 당시의 불교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성보다. 보존 문제로 최근에는 괘불을 현괘(懸掛)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찰을 방문해도 이를 친견하기 어렵다"면서 "서울에서 처음 전시되는 '봉화 축서사 괘불' 을 친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전시에는 고려시대의 귀족적인 불교문화를 상징하는 '안동 보광사 목조관음보살좌상' (보물)과 '안동 봉정사 목조관음보살좌상' (보물)이 최초로 함께 전시되고 있다. 이번 전시의 마지막 1개월간 '안동 봉정사 목조관음보살좌상' 은 보관을 쓰지 않은 모습으로 특별공개된다.

불교중앙박물관은 "높은 보계(보살상의 머리를 위로 묶은 상투)의 표현은 고려 중기 불교조각의 대표적인 특징"이라며 "고려시대 보관의 원형을 잘 보존하고 있는 '안동 보광사 목조관음보살좌상' 과 함께 영남 북부지역의 뛰어난 불교문화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불교평론 뇌허불교학술상에 유근자 교수 선정

'조선代 왕실발원 불상 연구'로
억불시대 불상 조성 현상 조명

'2022 불교평론 뇌허불교학술상' 수상자로 유근자 동국대 초빙교수〈사진〉가 선정됐다.

불교평론 편집위원회는 11월 1일 "올해 불교평론 뇌허불교학술상 수상자로 유근자 교수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수상 저술은 〈조선시대 왕실발원 불상의 연구〉(2022)이다.



'불교평론 뇌허불교학술상' 심사위원회는 "조선시대는 숭유억불(崇儒抑佛)정책을 표방해 불교가 억압받은 시대라고 말하지만, 알고 보면, 여러 측면에서 '불교가 사람들의 삶과 밀접하게 소통하는 시기' 였음을 저자는 강조한다"면서 "'억불(抑佛)을 해야 한다던 조선시대 절대 권력층이 어떻게 · 무엇 때문에 공공연히 계속해서 불상을 조성했던 것인가' 를 사료의 자세한 인용과 분석으로 밝히고 있다"고 평가했다.

유 교수는 수상소감을 통해 "〈조선시대 왕실발원 불상의 연구〉는 한국연구재단의 '2018년 저술 출판 지원 사업' 에 선정된 결과물"이라며 "이 저서는 왕실에서 조성하거나 중수한 불상 가운데 기록이 있는 것을 중심으로 분석한 연구의 결실"이라고 밝혔다. 뇌허불교학술상 시상식은 12월 말 열릴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밝은사람들연구소, 3년만에 대면 학술연찬회

11월 19일 '본성, 개념인가 실재인가' 주제로

깨달음, 분노 등 다양한 주제로 학술연찬회를 열었던 밝은사람들연구소가 3년만에 대면 학술행사를 연다.

밝은사람들연구소(소장 박찬욱)는 11월 19일 오전 10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공연장에서 '본성, 개념인가 실재인가' 를 주제로 제21회 학술연찬회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연찬회에서는 본성에 대해 초기불교 · 대승불교 등의 관점으로 분석한 연구논문들이 발표된다.

초기불교 측면에서는 이필원 동국대 교수가 '본성, 그 상상 너머' 를, 대승불교 측면에서는 동방문화대학원대학 교수 인경 스님이 '마음의 해석학:본성이란 무엇인가' 를 발표한다.

동양철학 · 서양철학 · 심리학 측면에서는 신정근 성균관대 교수가 '질서를 낳는 본성과 질서랑 일체화된 본성' 을, 신승환 가톨릭대 교수가 '인간의 본성: 이성, 자기실현과 생명성' 을, 박성현 서울불교대학원대학 교수가 '본성 실현을 향한 자아초월의 길' 을 각각 선보인다.

연찬회 교재는 도서출판 운주사에서 11월 초 출간하는 〈본성, 개념인가 실재인가〉이다. 연찬회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무료다.

신성민 기자